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다양화에 관한 연구

- 미술 장식품의 재료를 중심으로 -

김순분* · 안동만**

*(주) 대우건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A Study on Outdoor Diversity of Housing Community in Korea -Especially in Material of Public Art-

Kim, Soon-Boon* · Ahn, Tong-Mahn**

*Daewo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rporation, LTD., Ph.D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nce 1990s, increasing number of public arts have been installed in housing projects in Korea. Most of them were made of granite, bronze and stainless steel and were sculptures as well. Then it resulted in monotony. New technology and community need various trials in material and genre of public art.

The author wonders if people really want granite sculpture, so started the study of public arts in housing projects. Unfortunately most of people related public art wanted granite sculpture. But there were some hope in survey. They wanted the other genre and material like ceramic wall, art fountain and landmark tower. This means that they care about real world like vandalism and Product Liability, but also want more fantastic and beautiful world in the second step.

Recently, the facades of apartments are changing rapidly as more diverse materials in their forms, textures, and colors. And landscape designs are changing their clothes in every second as well. According to these flows public arts in apartments needs more diversified trial within genres and materials to avoid monotonous outdoor.

Key Words: Outdoor Sculpture, Public Art Trend, Material Preference

I. 서론

건축물의 미술 장식품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당초 시행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¹⁾. 건축물 미술 장식품의 본래 명칭은 'Percent for Art Scheme'으로서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 나타나 크게 네 단계인 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 계획 속의 미술,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²⁾을 거쳐 발전해 왔다. 현행의 '건축물 미술장식'이 그 용어에서부터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 개념에 제한됨으로써 공공미술로서의 잠재력 발휘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 미술 장식품 장르의 규정은 초기에 회화나 조각 등으로 단순하게 규정하던 것이 1984년에는 회화(벽화, 천장화), 문양(고유문양, 그래픽 디자인), 기타(조경, 시계탑)로 세분화되었고 최근에는 조형 예술물(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과 환경조형물(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 장식품의 장르는 건축물이나 공공장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개정요구가 계속되어오고 있다. 미술장식의 장르에 관해서 현행 미술 장식제도가 갖는 '장식'으로서의 공공미술 개념을 확대하여 공공장소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강태희, 1998).

최근 들어 건축물 미술 장식품의 설치대상 중 공동주택 비율이 커지고 있다³⁾. 공동주택에서의 미술 장식품은 생활과 환경에 대한 일반대중의 잃어버린 감수성과 관심을 일깨워주고 나아가 창의적인 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과제가 있다(최숙중, 1985: 23). 또한 공동주택은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작품과의 소통을 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공동주택의 미술 장식품은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창의력이 요구되며, 다양한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장르 및 소재의 다양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II. 연구의 목적

미술 장식품의 다양화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용 재료이다. 엄태정(1982)은 일찌감치 환경조각에서 재료의 다양화를 주장하였다. 현대미술에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 예술가의 제 1의 역할임을 인정하고, 도시 환경 내의 조각에서 새로운 재료의 이용을 시도하여 조각가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엄태정, 2004: 171. 재인용). 그러나 외부에서의 조각의 소재 다양화는 꾸준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 다른 산업과의 공조적인 자세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요즘은 아크릴이나 듀랄루민(duralumin) 등 신소재를 사용하는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지고 있다. 신소재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 작업과 설치후의 모니터링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꾸준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춘배(1993)는 사계절에 따라 기후의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내후성이 문제가 되며, 강도와 경도는 물론 진습, 온냉, 용해, 마모, 내충격성, 화학작용 등에 대하여 저항하는 성질이 강해서 풍화작용이나 폭풍우 등의 외력에 파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변화 없이 안정되게 보존할 수 있는 소재의 선택을 강조하였다(임춘배, 1993: 189). 최근 들어 감상목적의 작품으로 좌대를 높이 하고 그 위에 본 작품을 설치하는 종전의 스타일과 달리 요즘은 가서 만지고 앉기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는 인간 친화적인 작품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가 관람자와 함께 하는 친근한 소재일 경우에는 작품의 안정성, 반달리즘으로부터의 견고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작품일 경우 온도에 대한 민감도의 고려도 필요하며, 보행동선으로부터의 안전거리 확보, 감지할 수 있는 높이의 좌대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의 실현, 돌출물의 경우 사람들의 눈높이 이상으로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김성희(2002)는 야외 조각의 소재를 전통적인 소재와 신소재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다. 야외 조각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료로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돌, 금속, 나무, 점토, 상아, 납, 석고 등이 있고, 1990년대까지 조각의 대부분이 화강석이나 브론즈이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소재의 등장 및 가공기술의 발달로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듀랄루민, 테라코타, 아크릴, 강화유리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였다(김성희, 2002: 103). 스테인레스 스틸은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는 소재로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에 설치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듀랄루민, 테라코타, 아크릴, 유리 등은 아직도 설치되어지는 비율이 적은 편이다. 그러한 소재를 사용하는 작가의 수도 적을 뿐더러 실제 설치되어지는 작품을 보고 그 느낌으로 작품을 선택하는 건축주의 태도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미술 장식품의 장르와 재료의 다양화 연구를 위해 미술 장식품이 그 동안 어떤 장르와 재료로 설치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장르와 재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공동주택에서 미술 장식품이 가야할 방향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에서 미술 장식품은 기존의 자투리 공간에 설치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단지 입구나 휴게소 등의 주요 공간에 설치되어져 공간의 활력요소가 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III. 미술 장식품 재료의 종류

미술 장식품의 장르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지는 것은 조각이다⁴⁾. 따라서 공동주택의 조각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본다. 김성희(2002)는 일반적인 조각의 재료를 9가지로 분류하였다(표 1 참조). 조각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청동, 화강암, 스테인레스 스틸과 최근 공

표 1. 야외조각의 활용재료

분류	종류
점토, 찰흙	테라코타, 도조
석고	소석고
비철금속	청동, 실리콘 청동, 황동, 백동, 알루미늄
철강	무쇠, 스테인레스 스틸, 코르텐스틸
석재	화성암(화강암), 퇴적암, 변성암(대리석)
실리콘, 왁스	라텍스, 왁스
나무	햄록, 적삼목
시멘트	시멘트, 테라조
플라스틱	폴리코트, 아크릴
기타	유리, 레이저 등

자료: 김성희, 2002: 103-07, 필자 재작성

동주택의 노출 벽면이 많아지면서 사용빈도가 높아진 벽화의 재료를 살펴본다.

1. 청동

비철금속의 대표적인 재료인 구리 합금은 연한 재질이고 부식에 잘 견디며 다른 금속과 쉽게 용화된다. 청동(bronze)은 조각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료로서 구리와 주석계의 합금이다. 특성은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기후에 강하며 단단하고 가공이 용이하고 부식의 색상을 내기도 쉽다. 청동의 색상은 화공약품으로 부식하여 색상을 내며 암모니아로 어두운 청색을 내어 무게감을 주거나 초산철로 적색 색상을 내어 경쾌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그림 1 참조).

청동과 가끔 혼동을 일으키는 황동(Brass)는 놋쇠, 신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며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황동색을 띠고 있다. 마감 색상은 화공약품으로 부식하기 보다는 주로 광택을 내어 황동색을 살린다.

2. 화강암

청동 이외에 많이 쓰이는 소재가 석재이다. 조각에서 쓰는 석재는 대리석과 화강석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20여종의 다양한 석종이 분포하기는 하나 몇몇 광산이 문을 닫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석종은 백색, 분홍색, 회색 계통이 주로 나오며 중국도 우리와 유사한 색상이 많다. 화강석의 특징은 단단하여 가공하기가 힘들다.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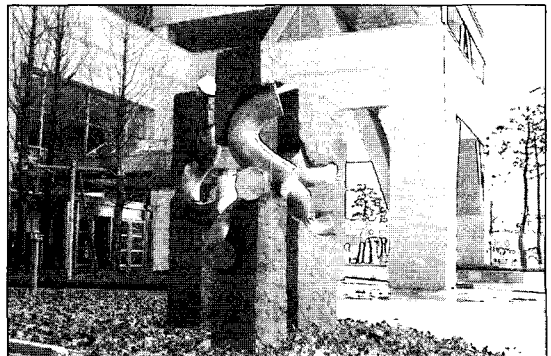


그림 1. 주상복합 건물 앞에 설치된 청동 작품(작가: 한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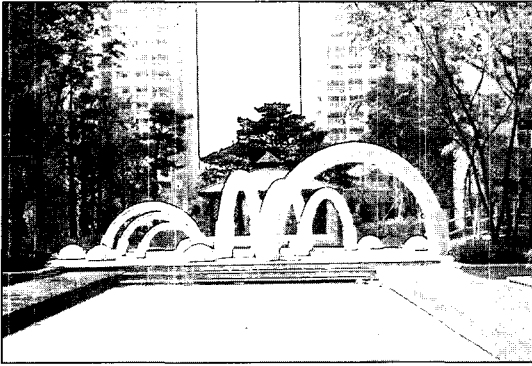


그림 2. 중앙광장에 설치된 화강암 작품(작가: 심영철)

구성이 강한 장점이 있다(그림 2 참조).

대리석은 산성비와 자외선에 약한 이유로 화강석에 비해 이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대리석은 색과 무늬가 아름답고 결이 고와 연마하면 아름다운 광택이 있다. 이 태리의 카라라 지방에서 산출되는 순백색 결정질 석회암은 유명하다.

3.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은 콘크리트와 수성 페인트를 외벽 마감으로 하는 아파트보다는 알루미늄 복합 판넬과 유리가 주재료인 주상 복합 건물이나 업무 시설 등에 어울린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화강석이나 브론즈에 비해 중후한 멋은 떨어지지만 경쾌한 맛과 첨단 느낌을 주는 공간에는 적합한 소재이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청동이나 화강암에 비해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 지하 구조물 상부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지하구조물 상부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스틸 작품 (작가: 안종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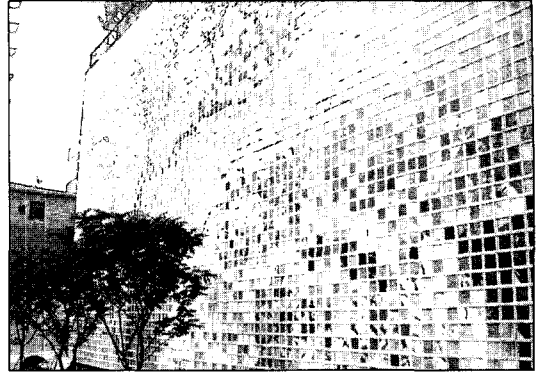


그림 4. 화강석, 돌가루, 타일 등을 사용한 벽화 작품 (작가: 임조형)

또한 다른 소재에 비해 큰 스케일의 작품 제작이 용이하여 상징탑이나 랜드마크적인 스케일의 작품 구상에 적합하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철강에 비해 녹이 스는 정도가 약하나 염산에는 약한 단점이 있다. 조각으로 쓰이는 스테인레스 스틸은 크롬 18%, 니켈 8%를 철에 가하여 만든 것으로 슈퍼 미러, 미러, 헤어라인, 무광 표면 질감을 내어 작품을 한다.

4. 기타 재료

최근에 경사진 대지에 건설되는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지하층 벽면의 처리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벽면을 치장하는 소재로 타일, 색유리나 기타 소재에 의한 벽화가 공동주택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돌가루를 사용하거나 기와조각이나 호박돌 등을 소재로 하여 디자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참조).

IV. 연구방법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의 조형 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의 환경 예술물 중에서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에 많이 적용되는 장르는 조각과 벽화이다. 가장 많이 선택되어지는 장르인 조각은 미술관에서 관람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보다는 외부에 나옴으로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

고 좌대가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벽화의 경우는 통행량이 많은 피로티 벽면, 노출이 심한 건축물 지하층 벽면과 토목 옹벽 면에 적용되고 있으나 빈도수는 적은 편이다. 분수대의 경우는 벽화보다도 적용빈도가 적으며 일반적으로 설비 시스템은 별도로 하고 수경공간과 어울리는 조각을 설치하는 예가 많다.

미술 장식품의 장르 및 재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A건설사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공동주택의 미술 장식품의 집행은 건축주가 직접 하거나 건설사가 대행한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현장에서 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와 달리 A건설사는 본사에서 미술 장식품의 선정 업무를 직접 하고 있었다. 따라서 A건설사의 경우,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였다. 분석 자료가 충분한 A건설사를 중심으로 장르와 재료의 변화 추이 및 선호 경향을 알아보았다.

여러 장르 중에서 조각이 선호도 1위에 차지하지만 조각 이외에 대안이 될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용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강석과 브론즈 이외에 다른 재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전문가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장르와 재료의 선호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두 건축물의 성격이 다르고, 또한 설치비용이 달라 선호도가 다르게 나올 것으로 가정을 하였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고, 공동주택 외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하였다. 장르에 대한 설문은 시행령에 예시된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분수대, 상징탑의 8개로 유형화 하였고, 이 8개의 장르 이외에 추가가 필요한 지에 대한 질문을 예, 아니오로 물어보았다. 재료에 대한 설문은 5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 위주로 하였다. 5가지 재료로는 화강암과 대리석의 석재, 청동과 알루미늄의 비철금속류, 스테인레스 스틸과 강철의 철금속류, 도자기와 테라코타의 흙점토류, 폴리코트와 아크릴의 플라스틱류로 나누었다. 또한 장르와 마찬가지로 재료의 추가에 대한 질의를 예, 아니오로 하였다.

설문 대상자 선정은 A건설사에서 미술 장식품의 업

무에 관련 있는 직원들로 하여 1차 설문조사를 하였고, 1차 조사 후 설문 내용을 보완하였다. 보완된 설문지는 미술 장식품 관련 전문가인 작가, 용역사, 작품 선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건설사의 전문가 집단으로 유형화 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은 미술 장식품이 결정되기까지 단계 별로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연구의 목적이 외부공간의 다양화를 위한 재료의 연구이므로 작가는 조각가를 위주로 하였고, 용역사는 화랑과 조형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의위원은 조사기간의 한계로 수도권의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하였다. 건설사는 A건설사의 미술 장식품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직원으로 하였다. 설문방법은 A건설사와 용역사는 설문서 배부에 의한 직접회수를, 작가와 심의위원은 용역사를 통한 간접회수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4년 11월 19일에 A건설사 직원 24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고, 2차 설문은 2004년 11월 22일에서 26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총 141부가 회수되었다(표 2 참조). 1차 조사와 2차 조사 공히 지인을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설문서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V. 결과 및 고찰

1. 미술 장식품 재료 변화 추이

미술 장식품의 재료는 장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장르에 따라 재료의 선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 장식품의 장르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A건설사의 장르 변화를 보면, 1999년에는 발주한 총

표 2. 설문조사 개요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설문 내용	미술 장식품 장르 및 재료에 대한 선호	미술 장식품 장르 및 재료에 대한 선호 및 추가 여부
설문 대상	건설사 24명	작가 50명/용역사 28명/심의위원 24명/건설사 39명
설문 시기	2004년 11월 19일	2004년 11월 22-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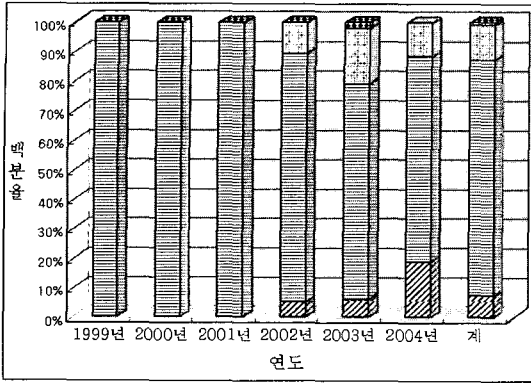


그림 5. A 건설사의 미술 장식품 장르 변화 추이
 범례: ■ 벽화, ■ 조각, ■ 회화, ■ 분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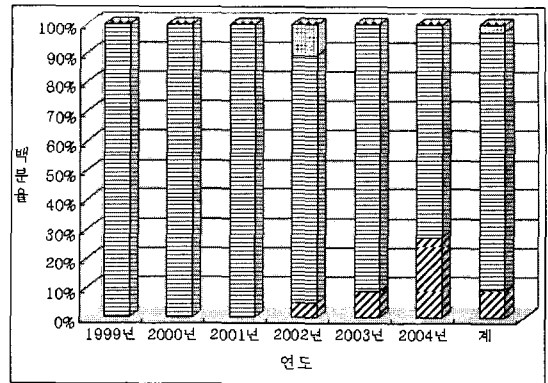


그림 6. A 건설사 아파트의 미술 장식품 장르변화
 범례: ■ 벽화, ■ 조각, ■ 회화, ■ 분수대

3건 중 조각이 3건으로 전부를 차지하였으며 2002년에는 벽화 1건, 회화 2건 그리고 조각이 16건으로 점차적으로 조각 이외의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발주 총 26건 중에 조각이 18건으로 더욱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이후는 벽화, 회화, 분수대 등으로 장르가 다양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조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나누어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2002년부터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벽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20%를 상회하고 있다(그림 6 참조). 2002년의 회화는 2건으로 고급아파트의 로비에 설치되었던 작품이다. 누계에서 보면 아파트에 조각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아파트에서 장르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피로티의 벽면이나 건물 내부의 벽면에는 슈퍼그래픽 등을 통한 회화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부조 형태의 작품 설치도 고려할 만한 요소이다(그림 7, 8 참조). 최근 들어 단지에 수경시설이 많이 설치되므로 분수대에 조형성을 가미하여 미술 장식품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광장이나 단지의 입구에는 기념비적인 스케일의 상징탑을 설치하여 단지의 랜드마크로 장소성을 살릴 수 있다. 또한 주민 복지시설에는 전시관이나 사랑방 등을 만들어 공예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새로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은 2003년부터 작품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아파트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9 참조). 분수대가 전혀 없던 아파트와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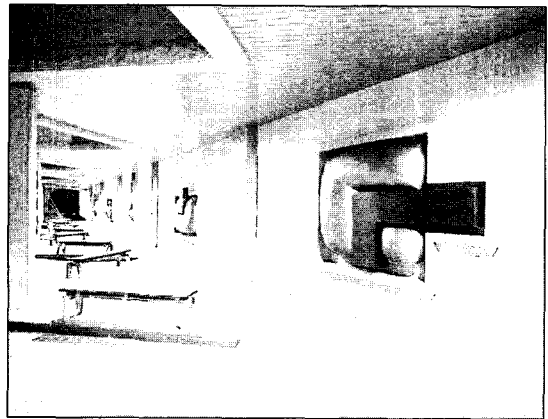


그림 7. 건물 내부 벽면에 설치된 청동부조 작품 (작가: 김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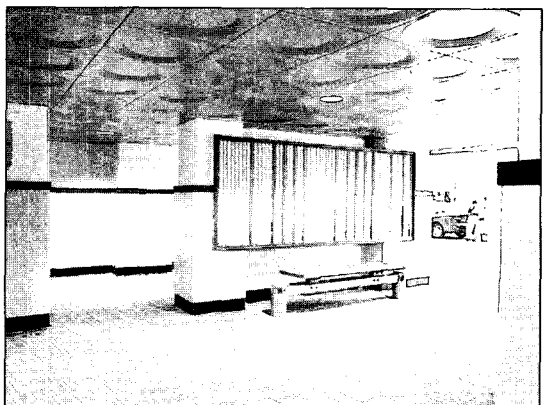


그림 8. 건물 피로티 내부에 설치된 작품(작가: 양행기)

주상 복합에서는 분수대가 설치되었다. 주상 복합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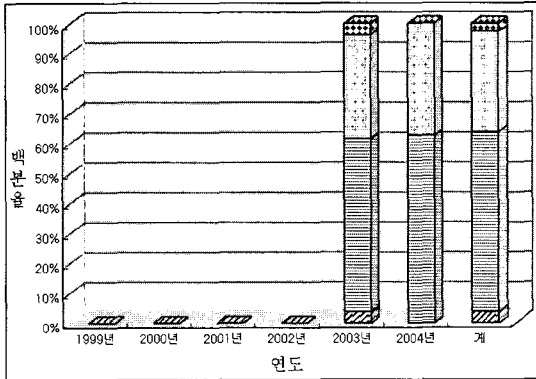


그림 9. A 건설사 주상복합의 미술 장식품 장르 변화 추이
 범례: ▨ 벽화, ▩ 조각, ▤ 회화, ▧ 분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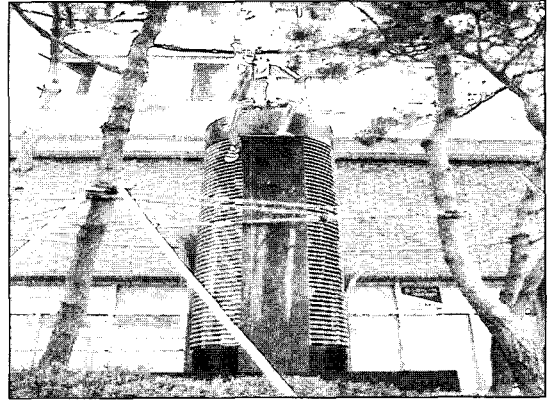


그림 11. 주상복합의 급기구에 설치된 조각 작품
 (작가: 정국택, 배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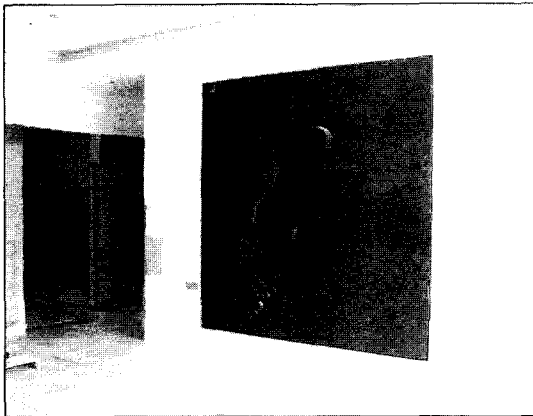


그림 10. 주상복합 로비에 설치된 회화 작품(작가: 한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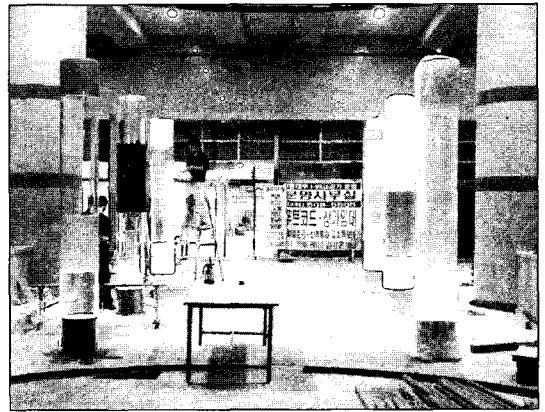


그림 12. 아크릴을 소재로 한 작품(작가: 박은선)

우, 외부에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로비에 회화로 하는 경우도 많다(그림 10 참조). 또한 급기구를 미술 장식품으로 하여 작품 구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그림 11 참조) 주상 복합건물은 법적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만 작품이 설치될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설치 비율이 0.1%인 아파트와 달리 주상 복합은 설치 비율이 0.7%로 높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설치 작품수도 많아지게 된다. 주상 복합은 그동안 설치 사례가 거의 없던 사진이나 공예 분야도 시도해 볼만하다.

재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와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을 합한 전체 건물에서 캔버스에 아크릴페인트나 복합재료로 하는 회화 작품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회화 중에서 청동을 소재로 하여 설치된 작품은 포함을 시켰다. 분수대의 경우는 돌을 사용하면 석재류로 하

고 스테인레스 스틸을 소재로 할 경우 철금속류로 분류하였다.

범례의 석재류는 화강암과 대리석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말한다. 또한 화강암과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브론즈가 혼합된 작품의 경우, 사용 소재가 과반수 이상이면 쪽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비철금속류는 브론즈이며 철금속류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철을 말한다. 흙점토류는 도자기류를 많이 사용하는 벽화가 이에 해당된다. 플라스틱류는 아크릴을 사용한 작품이다(그림 12 참조).

미술 장식품 재료의 변화를 보면, 1999년에는 비철금속류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에는 철금속류가 2001년은 비철금속류가, 2002년 이후로는 석재류가 가장 많이 설치되었다(그림 13 참조). 이는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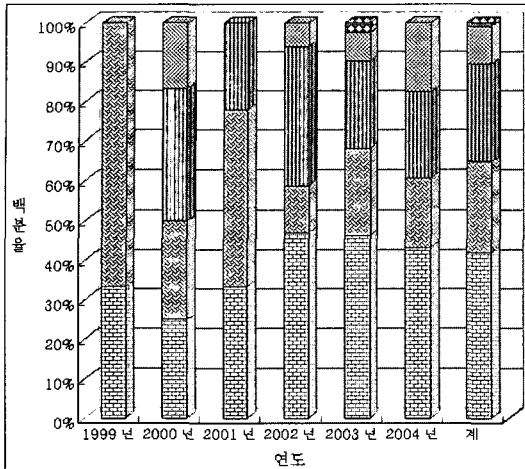


그림 13. A 건설사의 미술 장식품 재료 변화 추이

법례: 석재류, 바철금속류, 철금속류,
 흙점토류, 플라스틱류

에 브론즈와 스테인레스 스틸이 많이 선호되었고 후기로 접어들면서 화강석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치를 보면 화강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스테인레스 스틸, 그리고 브론즈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단지는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관리가 안 되는 점 때문에 내구성이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품을 선정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화강암이 많이 선택되어진다. 주거단지도 최근 들어서는 건물 내외부에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지므로 사용 소재도 다양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2. 미술 장식품의 재료 선호 조사 결과

A건설사의 장르와 재료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장르와 재료가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미술 장식품은 선정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는 소재의 작품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화강암과 브론즈 위주의 조각에서 외부공간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서는 총 141부이었으며, 작가가 50부, 용역사가 28부, 심의위원이 24부, 건설사가 39부이었다(표 3, 4 참조). 통계처리를 위하여 표본이 비

표 3. 설문대상자 남녀 구성

구분	작가	용역사	심의위원	건설사	계
남	36	10	17	29	92
여	14	18	7	10	49
계	50	28	24	39	141

표 4. 설문대상자 연령대 구성

구분	작가	용역사	심의위원	건설사	계
20대	5	9	2	5	21
30대	15	13	19	19	66
40대	19	3	2	15	39
50대	6	1	1	0	8
60대	5	2	0	0	7
계	50	28	24	39	141

슷한 수로 이루어져야 하나, 자료처리를 위한 기준은 상회하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설문 내용은 미술 장식품의 장르와 재료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인적 사항이었다(부록 1 참조). 장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시된 유형을 인용하였고, 재료는 김성희(2002)의 분류 중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 위주로 하였다.

설문서의 분석은 설문의 내용이 단순하므로 엑셀 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사, 2003)으로 하여 설문 결과를 입력하고 단순 빈도수를 계산한 후 차트 기능을 이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설문 결과 미술 장식품의 장르에 대한 선호는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공히 조각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재료로는 석재류와 비철금속류를 선호하였다. 이는 A건설사의 장르와 재료 변화 추이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외의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2 참조).

첫째, 장르 선호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사의 40% 이상은 조각을 1순위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1순위로 벽화나 분수대를 선택하였고, 2순위나 3순위로 조각을 선택하였다. 이는 아파트 외부공간이 다양해짐에 따라 벽화나 분수대 등의 조형화로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엇보인다.

둘째, 장르 선호도에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작가나 용역사는 80% 이상이 조각을 선택하였으나 심의위원이나 건설사는 조각을 50~60%만 선택하고 20~30%는 회화를 선택하였다. 이는 설문 대상자인 작가의 구성이 조각가이어서 조각의 선택이 많았고, 용역사의 경우 실제적으로 벽화나 분수대의 전문 작가가 적으므로 인해 조각의 선택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장르 선호도에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2번째로 선호하는 장르를 물어본 결과 심의위원은 조각, 분수대, 회화의 3개 분야를 선택한 반면에 건설사는 벽화, 공예, 조각, 회화, 분수대, 상징탑, 사진, 서예로 다양한 장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료 선호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첫 번째로 선호하는 재료를 물어본 결과 건설사는 석재류를 80% 이상이 선택했고 용역사는 석재류를 50% 이상 선택하고, 철금속류를 40% 이상 선택하였다. 이는 안전이 최우선인 건설사의 입장과 원가를 생각하는 용역사의 입장 차이로 보여진다.

다섯째, 재료 선호도에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선호 1순위에서 심의위원은 80%가 철금속류를 원했고 작가는 석재류, 비철금속류와 철금속류는 골고루 원하였다.

여섯째, 재료 선호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사는 2, 3순위에서 흙점토류를 선택하였다. 이는 주거단지에서 디자인으로 처리해야 하는 노출 벽면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장르의 종류 추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심의위원과 작가와 건설사가 상반된 의견을 보여, 작가의 74%, 건설사의 69%가 “아니오”를 선택하였고, 심의위원의 69%가 “예”를 선택하였다(그림 14 참조). 이는 심의를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작가와 건설사는 장르가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지만 결국 선정되는 작품은 대다수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조각 일변도로 심의에 접수되므로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불만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 건설사와 작가는 안정성과 내구성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작품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재료의 종류 추가 여부에 대한 결과 또한 심의위원과 작가와 건설사가 상반된 의견을 보여, 작가의 56%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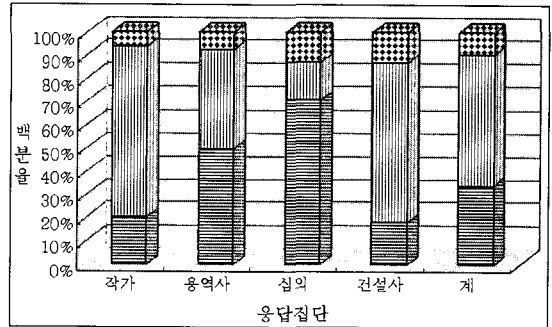


그림 14. 미술 장식품 장르추가에 대한 응답

범례: ■ 예, ■ 아니오, ■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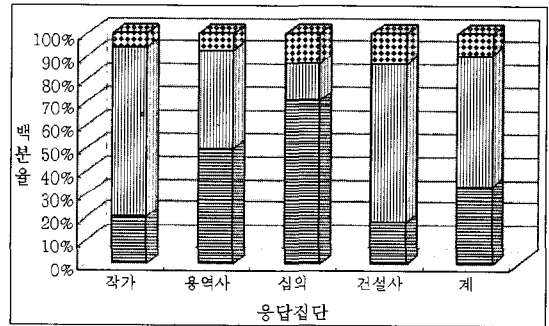


그림 15. 미술 장식품 재료에 대한 응답

범례: ■ 예, ■ 아니오, ■ 무응답

건설사의 59%가 “아니오”를 심의위원의 83%는 “예”를 선택하였다(그림 15 참조). 이 또한 장르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들은 다양한 장르와 소재로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I. 결론

미술 장식품에 대한 현황 분석과 선호도 조사 결과는 어느 면에서는 예상되어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화강석과 브론즈 조각이 많이 설치되고 있으며, 설문 결과에서도 대부분이 선호도 1위로 조각과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하였다. 그런 반면에 선호도 2순위와 3순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의견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안정성과 내구성, 선정 절차라는 현실적인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다양한 외부공간을 연출하고 싶다는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장르와 재료의 추가 여부

에 대한 설문 결과는 그래서 흥미롭다. 심의위원은 장르와 재료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작가와 건설사는 장르와 재료의 추가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이런 상반된 의견을 보인 것은, 실제적으로 종류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상정되는 작품이 석재 조각이 대부분인 것에 대한 심의위원의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소재의 발달과 인간 감성의 변화로 그 흐름에 맞추어 미술 장식품의 장르와 재료도 변화를 하여야 한다.

아파트에서 미술 장식품은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장소성을 부여하는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미술로서의 역할을 위해 대다수의 관람자가 만족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다. 최근 들어 미술 장식품이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미술 장식품은 여러 한계성 때문에 석재와 비철금속의 조각으로 설치되어지는 현실에서 외부 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관련 전문가들은 다양한 작품의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이용자의 의식 조사를 향후 과제로 삼으며 연구의 결을 맺는다.

주 1. 미술 장식품 제도의 도입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권장사항이던 것이 1984년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하여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1995년 법 및 형의 개정 및 지자체 조례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해당 건축물은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미술 장식품 제도는 법 제정 이후 30여년의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며, 미술장식이란 용어에 대한 변경(공공미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의 사용), 미술진흥에서 도시환경개선으로 인식 전환, 기금 제의 도입, 장르 및 소재의 확대 등의 제도 개선과 지자체 조례의 정비 및 운영의 내실화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조정승, 2004).

주 2. 공공미술(public art)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한다. 장소위주(site specific)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는데, 모두 주어진 장소에서 설치 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이 도시이고, 그 형식은 조각, 벽화, 디자인 등 다양한 범주를 포괄한다(박삼철, 2000: 21). 현대의 공공미술은 형태나 기술적으로

매우 다채로워지고 있으며, 재료의 발달도 이에 알맞게 값싸고 실용적인 매체가 계속 새로 개발되고 있어서, 공공미술의 범주는 모든 환경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넓어지고 있다(최숙중, 1985: 21).

- 주 3. 서울시에 접수된 작품의 구성 비율을 보면, 공동주택이 66%, 주상복합 18%, 업무시설이 15%, 기타가 1%를 차지한다(서울시 홈페이지 <http://open.seoul.go.kr/> 2003년 자료 중 조각에 관한 자료참고).
- 주 4. 서울시의 경우, 1996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전국의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각이 7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화가 24%, 벽화가 1.2%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구분		건수	백분율(%)
조형 예술물	회화	965	24.0
	조각	2,910	71.0
	공예	31	0.8
	사진	14	0.4
	서예	20	0.5
	기타	52	1.3
	소계	3,392	98.0
환경 조형물	벽화	49	1.2
	분수대	17	0.3
	상징탑	16	0.3
	기타	7	0.2
	소계	89	2.0
합계		4,081	100.0

인용문헌

- 강태희(1998)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성희(2002) 야외 조각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료. 월간환경과 조경 174: 103-107.
- 임태정(2004) 조각과 사유. 서울: 도서출판 창미.
- 조정승(2004) 지방자치단체 미술 장식품 설치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조경미학연구실.
- 박삼철 역(2000) 미술, 공간, 도시: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Miles, M., Art, Space and the City. 서울: 학고재.
- 임춘배(1993)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형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22: 181-202.
- 최숙중(1985) 우리나라 도시공공미술의 활성화방안을 위한 연구-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 고 접 수: 2005년 6월 25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5년 8월 18일

4인익명 심사필

1.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박사 과정의 “조경재료 및 시공” 수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미술장식에 있어서 외부 환경조형물 재료의 선호”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성의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협동과정 조경학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있어서 외부 환경조형물 재료의 선호에 관한 연구

■ 귀하께서는 건축물의 미술 장식품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건축물의 미술 장식품의 장르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개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두어 1, 2, 3으로 명기)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주상복합, 오피스, 백화점 등 일반건축물)
① 회화		
② 조각		
③ 공예		
④ 사진		
⑤ 서예		
⑥ 벽화		
⑦ 분수대		
⑧ 상징탑		

■ 상기에서 언급한 8종류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되어지는 조각이나 환경조형물의 재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개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두어 1, 2, 3으로 명기)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① 석재류 (화강암, 대리석)		
② 비철금속류 (청동, 알루미늄)		
③ 철금속류 (스텐레스, 강철)		
④ 흙, 점토류 (도자기, 테라코타)		
⑤ 플라스틱류 (폴리코트, 아크릴)		

■ 상기에서 언급한 5종류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질문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여성 (), 남성 ()
- (2) 귀하의 연령은?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3) 귀하의 직업은? 작가 (), 용역사 (), 심의위원 (), 건설사 ()

2. 설문서 분석 내용

-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공동주택 외는 주상복합, 오피스, 백화점 등을 말함

- 장르에 관한 선호도 조사

법 레: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분수대, 상징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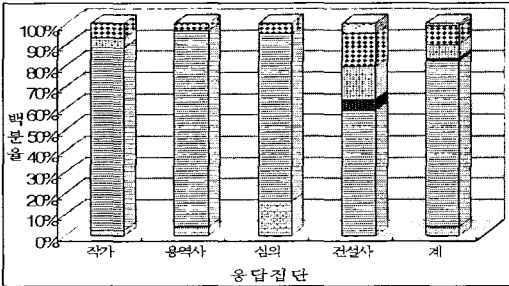


그림 1. 공동주택에 대한 장르 선호도에서 첫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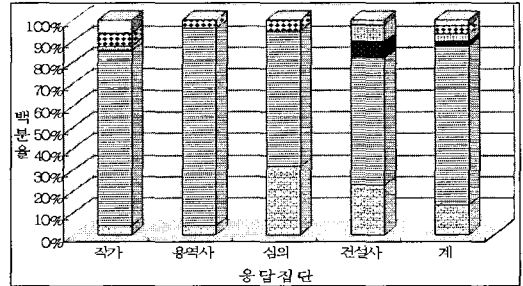


그림 5. 공동주택 외에 대한 장르 선호도에서 첫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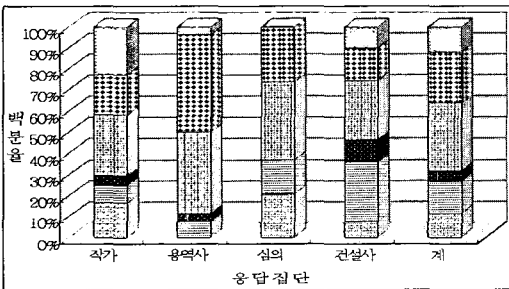


그림 2. 공동주택에 대한 장르 선호도에서 두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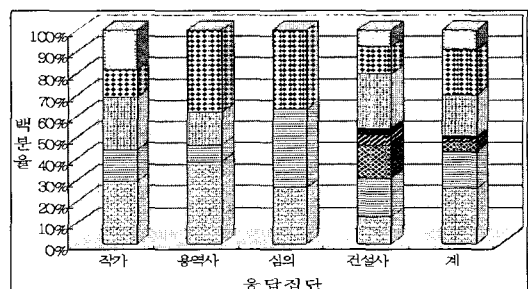


그림 6. 공동주택 외에 대한 장르 선호도에서 두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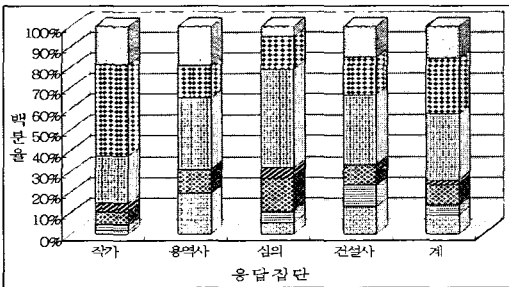


그림 3. 공동주택에 대한 장르 선호도에서 세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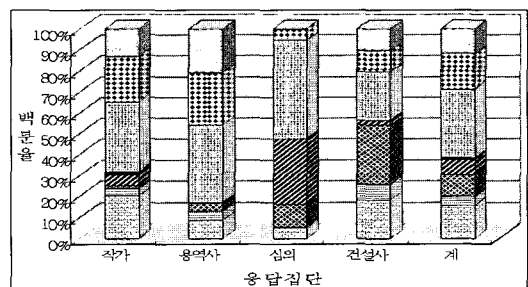


그림 7. 공동주택 외에 대한 장르 선호도에서 세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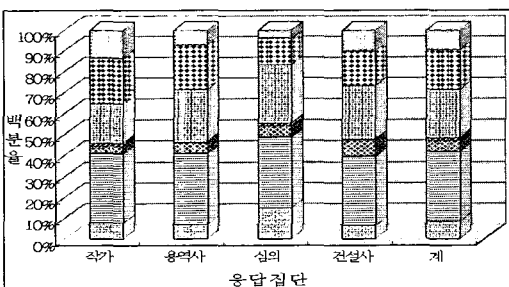


그림 4. 공동주택에 대한 장르 선호도에서 누계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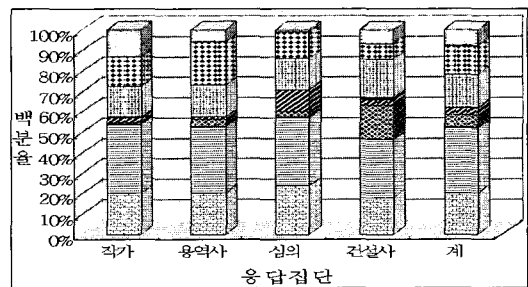


그림 8. 공동주택 외에 대한 장르 선호도에서 누계 값

- 재료에 관한 선호도 조사

범례: 석재류, 바철금속류, 칠금속류, 흙점토류, 플라스틱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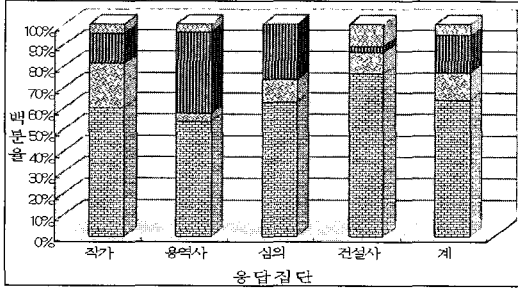


그림 9. 공동주택에 대한 재료 선호도에서 첫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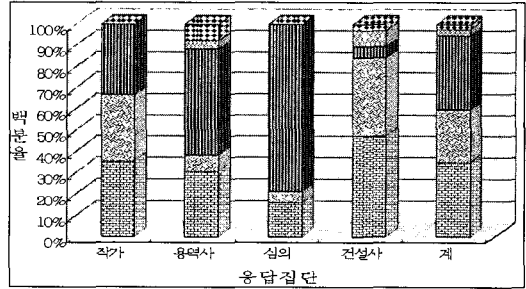


그림 13. 공동주택 외에 대한 재료 선호도에서 첫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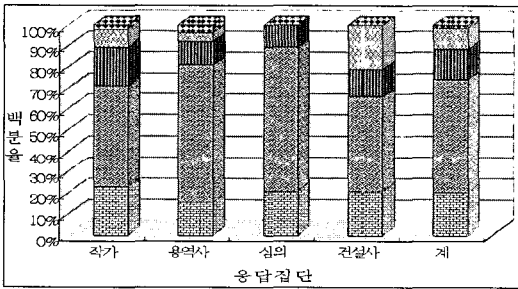


그림 10. 공동주택에 대한 재료 선호도에서 두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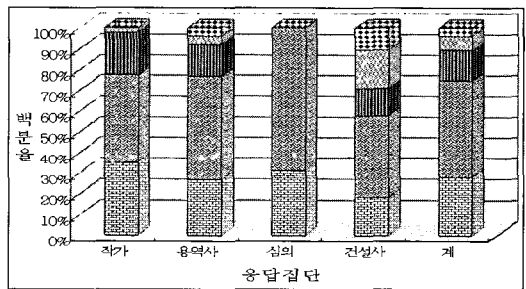


그림 14. 공동주택 외에 대한 재료 선호도에서 두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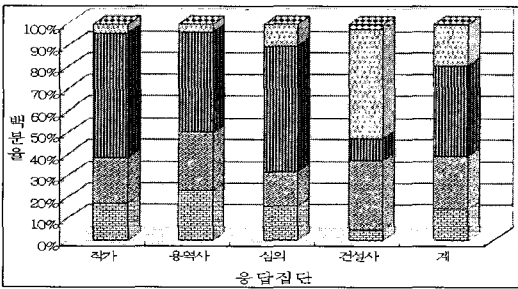


그림 11. 공동주택에 대한 재료 선호도에서 세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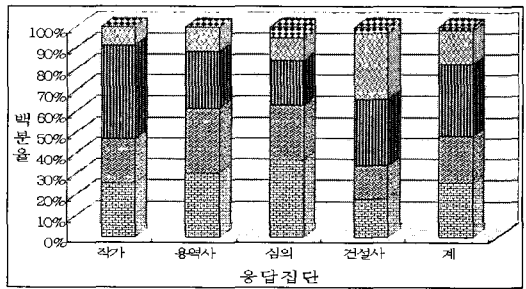


그림 15. 공동주택 외에 대한 재료 선호도에서 세 번째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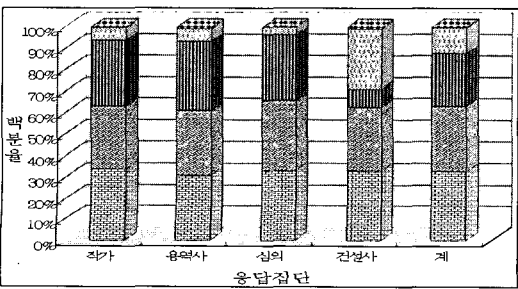


그림 12. 공동주택에 대한 재료 선호도에서 누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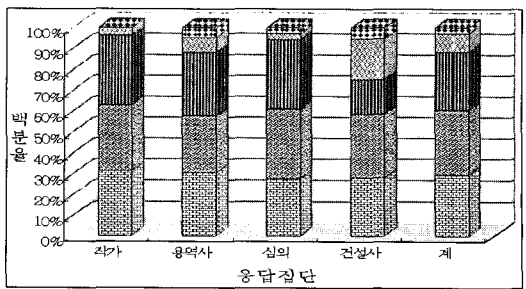


그림 16. 공동주택 외에 대한 재료 선호도에서 누계값